

#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의 18세기 복식전시가 현대 패션에 미친 영향 연구

## A Study on the Influence of 18th Century Costumes in Contemporary Fashion

중부대학교 토탈코디예술학과  
부교수 윤은재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류과학전공  
박사 박형애

Dept. of Total Coordi, Joongbu University  
*Prof. : Yun, Un-Jae*  
Major of Clothing and Textile, Chung-Ang University  
*Dr. : Park, Hyung-Ai*

### ● 목 차 ●

I. 서론	V. 현대 패션에 표현되는 18세기 복식 영향
II. 이론적 배경	VI. 결론
III. “영구한 세기” 전에 나타난 복식의 특징	참고문헌
IV. “위험한 관계” 전에 나타난 복식의 특징	

### < Abstract >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cheme for correctly making Korean fashion design known to the world. It attempted to increase the influence of the Eighteenth Century Costume in contemporary fash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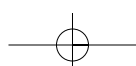
During the 18th century, France had an almost complete monopoly of fashion. Growing out the fairyland atmosphere of the French Court and often conceived of as ennui by personal vanity, this fashion was a product of an age which sought at any price to live life with supreme grace.

Most of the special costume exhibitions in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are planned and directed by Polaire Weissman, Diana Vreeland, Richard Martin, Harold Koda.

The Costume Institute has held exhibitions of the Eighteenth Century Costume several times such as “Museum Period Rooms Re-Occupied in Style,” “the Eighteenth Century Women,” “the Ceaseless Century,” “Dangerous Liaisons,” etc. Especially, the exhibition of “Dangerous Liaisons” is organized in ten parts such as the Portrait, the Levee, the Music Lesson, the Withdrawing Room, the Broken Vase, the Favorite, the Masked Beauty, the Card Game, the Late Supper, and the Shop.

Using the eighteenth century as its touchstone, The Ceaseless Century proceeds differently, not seeking the short distance between a discrete present and the multiple past but rather showing the complicated navigation that comes

Corresponding Author: Un-Jae Yun, Joongbu University, Dunsan-Dong 1122, Seo-Gu, Daejeon, 320-120 Tel: 82-42-471-8534 Fax: 82-42-471-8534  
Email: unjaeyun@joongbu.ac.kr.



of revivalism swing to and fro on the timeline of history and sensibility.

The designers featured include Karl Lagerfeld, Gianni Versace, Vivienne Westwood, Jean Paul Gaultier, Christian Dior, Cristobal Balenciaga, Christian Lacroix, Stella McCartney forChloe, Olivier Theyskens, Alexander McQueen, etc.

Therefore, Korean designers should refrain from (Ed-confirm) the foreign collection without a clear purpose and should devote their effort to create with an active attitude.

**주제어(Key Words):** 18세기 복식(Eighteenth Century Costume), 의상연구소(Costume Institute), 영구한 세기(the Ceaseless Century), 위험한 관계(Dangerous Liaisons)

## 1. 서론

21세기는 문화경쟁시대로 세계의 여러 박물관에서는 정부와 산업체 지원을 바탕으로 복식유물 전시회가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이는 패션디자이너 및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계기가 되어 새로운 디자인을 창작하는데 일조를 해오고 있다.

특히 1998년과 2004년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의 의상연구소(Costume Institute)에서 개최되었던 “영구한 세기(the Ceaseless Century)”와 “위험한 관계(Dangerous Liaisons)”라는 제목의 두 전시회는 18세기 로코코 시대의 패션을 그 당시의 사회상과 예술·문화적인 배경과 함께 연출·기획한 전시회들로서 일반 관람자들은 물론 복식문화사거나 패션 디자이너들에게 주목을 크게 받았다.

따라서 두 전시회에 전시되었던 대표적인 복식들의 연구를 통해 18세기 복식의 특징과 현대 디자이너들의 재창조 작업들을 살펴봄으로써 미래 패션계를 담당할 우리나라 패션 디자이너들에게 한국적 패션디자인을 올바르게 세계에 보급할 수 있는 방안과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의상연구소의 전시 활동과 기획 등의 과정 등을 살펴봄으로써 복식사 연구의 공헌뿐만 아니라 디자이너들이나 관람객들에게 무한대의 지식과 영감을 전달하는 전시의 중요성과 역할을 부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최근까지의 현대 패션에 관한 선행 연구 경향은 각 시대에 나타나거나 유행되었던 예술 사조나 패션의 표현양식 또는 심미적인 요소 등이 현대 패션에 표현되거나 응용되는 것을 중심으로 연구되는 추세이며 패션쇼와 비디오 자료들, 잡지의 사진 자료 등을 연구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박물관의 복식전시 연구를 통해서 박물관의 역할이 역사적 복식의 보존 전시만이 아니고 각 시대의 복식의 형태간의 영향성 등을 확연히 보여주고 증명함은 물론이며 실제로 사용되었던 인테리어나 소품 등의 전시공간의 기획을 통해서 사회적 문화사적인 배경까지 깊게 이해할 수 있음을 18세기 시대의 복식 유물 전시를 통해 재조명하였다. 그러한 박물관 전시회의 이해를 통하여 창조적이고 미래적인 패션을 새롭게 예견하는데 도움을 주게 되기를 희망한다.

연구내용으로는 먼저 18세기의 시대적 배경과 유행했던 대표적인 여성 복식 및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복식전의 특징

을 이론적 배경으로 고찰하였으며, 3장과 4장에서는 “영구한 세기”와 “위험한 관계”전에 나타난 복식을 관람 자료와 도록 등을 중심으로 연구하였고, 5장에서는 이 두 18세기 복식전에 전시된 복식들의 디자인적 특징들과 현대 패션에서 표현되는 18세기 디자인의 공통되는 특징들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18세기의 복식 디자인이 18세기 이후 계속적으로 패션디자인에 응용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18세기 복식의 객관적 이해와 시각을 미래 패션디자이너들에게 제 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의 도서관 및 국내·외 인터넷과 도서관에서 얻은 최근 정보와 각종 문헌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으며, 둘째, 현지조사를 통해 “영구한 세기”와 “위험한 관계”전 관찰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고, 셋째, “영구한 세기”와 “위험한 관계”전 등 각종 복식전 도록과 퍼스트 뷰(Firstview), 보그(Vogue) 등 각종 인터넷 관련 자료와 모다 인(Moda In), 패션 뉴스(Fashion News) 등의 패션지에 발표된 각종 기사와 사진 자료들을 분석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시대적 배경

18세기의 유럽대륙은 프랑스가 정치·경제·문화적인 면에서 우위를 차지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프랑스적 사고가 유럽을 온통 지배했다. 프랑스는 화려한 궁정 생활을 영위하며 바로크시대의 막을 내린 태양왕 루이 14세(Louis XIV, 1643-1715)의 서거 후 오를레앙(Phillippe d'Orleans) 공에 의한 섭정시대(1715-1723)를 거쳐 루이 15세(Louis XV, 1715-1774)와 루이 16세(Louis XVI, 1774-1792)의 로코코시대를 맞는다. 루이 15세의 섭정시대부터 루이 16세시대의 초기까지의 가장 화려했던 프랑스의 로코코문화는 유럽 전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유럽 각국은 앞 다투어 프랑스의 문화를 추종했다(윤재희, 지연순, pp.20-21).

이 시대의 유럽은 사상적으로는 이성만능의 시대이고 사회적으로는 향락추구의 시대였다. 17세기에 활발했던 상업력과 결탁해서 강대한 왕국들을 이룩해 낸 유럽의 여러 나라

에서는 전통적으로 세습되던 귀족계급뿐만 아니라 상공업의 발달로 부유해진 시민계급이 지배세력의 일환으로서 기반을 쌓았으며, 사회적·사상적으로 18세기의 커다란 원동력이 되었다. 르네상스시대부터 싹트기 시작했던 인본주의 사상은 정치·경제·과학·문학·철학 등에 이성과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새롭게 인식하는 계몽주의 사상(The enlightenment)으로 발전했고, 미술면에서는 로코코 양식이 태어났다(Grand Collection of World of Art: Baroque Rococo Art, p.137).

로코코의 어원은 프랑스어로 자갈이란 뜻의 로카유(Rocaille)과 조개껍질이란 뜻의 꼬끼유(Coquille)가 합쳐진 것으로 이는 정원의 장식으로 사용된 조개껍질이나 작은 돌의 곡선을 의미한다. 로코코 미술의 성격은 루이 14세시대의 장중한 위압감과 화려한 의식을 갖춘 궁전생활이 낳은 바로크미술과는 달리 가볍고 섬세한 색채와 문양으로 현란하기는 하지만 아주 세련된 귀족 취향의 미술이었다. 그 주체가 되었던 장식미술은 아름답고 화려하고 경쾌하게 약동하는 곡선의 활용과 좌우균형을 파괴한 자유로운 형식을 특징으로 하여, 장식적으로 문양화된 모티프와 자연주의적 모티프가 뒤얽힌 것으로서 경쾌하게 공간속에서 전개된 화려하고 친숙한 양식이다. 이는 프랑스뿐 만 아니라 유럽 전반에 걸쳐 예술양식개념으로 발전하게 되었다(윤재희, 지연순, p.21).

로코코 양식은 세련되고 귀족적으로 우아하고 여성적인 성격이 특징으로 추한 현실을 배제하고 세상의 아름다움과 즐거움만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한 풍조는 귀족이나 지식인, 예술가 등의 만남의 공간이며 문화의 중심지이자 전파지인 살롱에서 활발히 받아들여졌다. 살롱에 출입하는 이 시대의 신사숙녀들은 정성들여 화장하고 옷을 사치스럽게 입어 자신이 예술작품인양 몸치장을 했다. 그들은 복식을 인간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여겼으며 인간을 완

성하는 부분이라고 확신했다(Max Von Boehn, pp.44-45).

## 2. 18세기 여성복식의 특징

프랑스는 루이 14세 통치기간에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에서 막대한 재원을 소모하여 재정적으로 어려워졌으나 루이 15세의 궁정과 귀족계급의 쾌락추구의 성향이 프랑스 복식을 더욱 매혹적이고 우아한 것으로 발전시켜 전 유럽이 프랑스 모드를 따랐다(신상옥, p.197).

루이 15세의 애인 마담 뽁파두르((Madame Pompadour: 1721-1764)와 루이 16세의 왕비인 마리 앙투와네트((Marie Antoinette: 1755-1793)는 당시 살롱문화의 주역으로써 예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술가나 문인들의 후원자로서 프랑스 예술은 물론 전 유럽의 예술분야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유행을 창조하던 패션 리더였다. 그들의 복식은 자유로운 생활양식에 영향을 받아 환상적이고 화려하며 우아하고 여성미의 극치를 이루었다.

18세기의 대표적인 여성 의복의 종류들로는 와토 가운(watteau gown), 로브 아 라 프랑세즈(robe à la française), 로브 아 라 폴로네이즈(robe à la polonaise) 등이 있다.

와토 가운은 프랑스의 화가 와토(Antoine Watteau: 1681-1721)의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복식으로 많이 그려진데서 유래하였다. 이 복식의 특징은 뒤 네크라인에 잡힌 와토 주름으로 풍성한 실루엣을 이룬다(그림 1 참조). 이 실루엣을 만들기 위해서 스커트 안에는 종형태의 후프형 파니에(bell shape pannier)를 입었다. 바디스의 앞트임에는 스토머커(stomacher)가 달려있다.

〈그림 2〉의 마담 뽁파두르의 초상화에서 보여 지는 의복은 로브 아 라 프랑세즈이다. 로브 아 라 프랑세즈의 기본구성은 언더스커트와 오버드레스로 되어 있으며 언더스커트 속에는 종형태의 파니에(후에 양옆으로 퍼지는 사이드 후프



〈그림 1〉 J.F. De Troy: The Declaration of Love, 1731 (Boucher, p.27)



〈그림 2〉 마담 뽁파두르, 1759 (Boucher, p297)



〈그림 3〉 로브 아 라 폴로네이즈, 1780(Richard, p.36)

## 4 대한가정학회지: 제44권 1호, 2006

(side hoop)로 유행됨)를 착용하여 스커트가 풍성하게 확대된 실루엣이다. 바디스의 뒤판은 스커트와 연결해서 재단되었고 앞판에는 리본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스토머커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목둘레는 스퀘어 네크라인으로 가슴까지 깊이 파였으며 장식적인 레이스로 가슴부위를 가린 것도 있다. 팔꿈치 길이의 소매 끝에는 3겹의 레이스로 러플 장식을 하였으며 스커트와 네크라인에는 리본장식, 주름장식인 팔발라(falbala), 꽃장식, 레이스 또는 자수 등으로 장식되어 화려한 아름다움을 과시하였다(신상옥, p.210).

루이 16세의 왕비인 마리 앙투와네트의 패션으로 대표되는 시기에는 로브 아 라 프랑세즈의 좌우로 확장되게 확대되었던 스커트의 볼륨이 축소되었고 최초로 스커트 길이가 발목위치까지 짧아진(땅으로부터 약 7.5cm 높이) 로브 아 라 폴로네에즈가 착용되었다. 로브 아 라 폴로네에즈는 끈으로 스커트부분을 드레이프지게 끌어 올릴 수 있게 조종하여 안에 착용한 화려한 언더스커트가 보이게 하기도 하고 뒤쪽으로 스커트의 자락을 모아 올려 버슬(bustle) 형태를 연출하기도 했다.

헤어스타일도 로코코 시대 초기의 머리카락을 부풀리지 않고 뒤로 넘겨서 불인 스타일에서 점차 장식적이고 거대해졌다(약 1m 20cm 높이). 각각의 헤어스타일에는 그 당시의 사회상과 시사성을 반영한 디자인을 연출했는데 활발한 해상 무역의 수단인 배(ship), 아름다운 정원, 미국의 독립전쟁 등을 상징하는 대포 등으로 장식을 하고 그에 따른 명칭을 붙이는 것이 유행했다.

## 3.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복식전의 특징

세계 4대 박물관(런던의 대영박물관; 상트 페테스 부르크의 에르미타주; 파리의 루브르;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중 하나인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은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대략 200만점 이상의 미술품을 소장하고 있는 미국 최대의 박물관이다. 미술, 조각 등 각국의 유물이 시대별, 테마별로 전시되고 있으며 190부서로 나뉘어 소장하고 있는 컬렉션의 1/4를 전시하고 있는데 전시실만도 200여실에 이른다. 주요 소장품은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 및 로마의 미술품, 중·근동 지역의 고미술품, 유럽과 동양의 회화·조각·무기·악기 및 유리 공예품 등이다.

한편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북쪽 윙(North Wing)의 지하에 위치한 의상연구소는 세계 각국의 복식 컬렉션의 종류와 수량, 심도 깊은 학문적 연구, 활발한 전시활동 등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1959년부터 박물관의 중요한 부서가 되었다. 의상연구소의 전신은 20세기 초엽부터 복식을 수집하기 시작한 아이린 루손(Irene Lewsohn)과 그의 여동생 알리스 루손(Alice Lewsohn)이 무대 디자이너인 알렌 빈스타인(Aline Bernstein) 및 리 시몬슨(Lee Simonson) 등의 복과 무대 디자인 및 예술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1937년 뉴욕 Henry가의 Neighborhood 극장에 설립한 복식박물관(Museum of Costume Art)이다. 그들은 1939년에 최초의 복식전을 개최하였으며 1940년부터는 메트로폴리탄 박물관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1946년 12월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합병되었다.

의상연구소에는 5대륙에서 수집된 14세기 신발인 풀렌느(poulaine)부터 현대 디자이너들의 작품까지 약 75000여점의 의복과 장식구 등을 소장하고 있다. 주 업무는 수집, 전시, 보존, 연구 및 교육 등이나 전시 프로그램은 매우 핵심적인 임무이다.

유물의 보존 못지않게 중요한 전시 활동은 관람자와 작품 혹은 유물 간에 끊임없이 대화하는 과정을 제공하는 것이며, 유물이 함축하고 있는 무한대의 메시지를 관람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하는 전시기획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즉 전시기획자는 관람객에게 호기심과 흥미를 주고 이를 다시 깊은 의문과 관심으로 유도하여 그 해답을 줌과 동시에 창의력 향상에 이바지해야 하므로 정확하고 심미적인 관점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의상연구소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찍부터 복식전을 개최하였으며 이를 기획한 대표적인 기획자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즉, 1939-1971년까지의 폴레어 화이즈맨(Polaire Wiessman), 1972-1989년까지 다이아나 브레랜드(Diana Vreeland, 1903-1989; Vreeland), 1993-1999년까지 리처드 마틴(Richard Martin, 1947-1999; Richard), 2000-현재 해롤드 코다(Harold Koda)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윤은재의 선행연구들(1998, 2004)과 본 연구를 통해

<표 1> 의상연구소 전시 기획자의 특징

기획자 이름	담당 기간	추정 전시회수	전 시 특 징
Polaire Wiessman	1939-1971	미확인(32회)	의복의 역사성과 디자인의 중요성 고취
Diana Vreeland	1972-1989	총 15회 기획	복식의 시대별로 환상과 투영 중시
Richard Martin	1993-1999	총 21회	과거의 복식이 현재 및 미래의 복식에 미친 영향을 통한 복식의 상징화 중시
Harold Koda	1999-현재	진행중	각 시대의 대표적 캐릭터들 및 내면의 세계들을 복식과 함께 전시(복식에 대한 폭넓은 해석 강조)

미국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의 의상연구소에서 개최되었던 18세기 복식과 관련된 전시는 <표 2>와 같으며, 본 장에서는 18세기 복식전에 대한 그림과 문헌 자료 파악이 가능하고 기획자별로 구분이 가능한 전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4>는 1963년부터 1964년까지의 “새로 단장한 박물관의 시대별 전시실”전의 전시 장면으로 17세기의 바로크 양식의 초상화를 배경으로 18세기의 로코코 시대의 아름다운 복식인 로브 아 라 프랑세즈를 착용한 여성을 함께 진열함으로써 두시대의 시간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표현한 전시실을 볼 수 있다. 현 메트로폴리탄박물관 관장인 필리페 드 몽테벨(Philippe de Montebello)은 이 전시가 당시 그가 처음 유럽 회화부 학예관으로 부임하여 메트로폴리탄박물관에서 본 첫 복식전이라고 하면서 그가 가장 좋아하는 전시라고 하였다(Richard, p.6).

<그림 5>는 1981년부터 1982년까지 Diana Vreeland가 기

획했던 “18세기 여성복식”전의 사진으로 그녀는 이 전시를 통해 시대적인 배경과 패션의 관계를 보여 주었다(Richard, p. 10). 거대한 헤어스타일의 꼭대기를 장식하는 배장식과 중국의 파고다와 마차 형태의 가구를 함께 배치함으로써 그 시대의 동양(특히 중국)과의 활발한 교역과 이미 동양의 문화가 그들의 예술이나 복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뒤의 초상화의 여인이 착용하고 있는 복식은 로코코시대 말기에 착용되던 슈미즈 드레스로 유행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다.

전시기획자였던 Vreeland는 패션 유행의 선도자였으며 의상연구소의 특별고문으로 1972년부터 1989년까지 역임하였다. 그녀는 복식을 시대별로 전시하였으나 학구적인 면보다는 각 시대의 아름다운 복식과 가구공예, 회화 등 환상과 투구에 승부를 건 전시를 주로 기획하였다. 즉 1973년부터 Vreeland는 패션애호가뿐 아니라 일반관람객이 그녀의 전



<그림 4> “새로 단장된 박물관의 시대별 전시실”의 전시장면(Richard, p.7)



<그림 5> “18세기 여성복식”의 전시장면(Richard, p.6)

<표 2> 18세기 복식과 관련 있는 복식전

전 시 명	전 시 기 간	특 징
Flowers in Costume & Decorative Paintings	54.5.12-54.7.29	꽃으로 장식된 복식과 예술: 1750-1880
Costumes of the 18th · 19th Century	55.3.-55.8.	18 · 19세기 복식
From the Age of Louis XV to the Age of Worth	61.4.21-62.4.23	루이 15세 시대부터 워스의 시대까지: 프랑스의 영향을 받은 미국 패션
The 18th and 19th Century Costume	62(1년간).	18 · 19세기 복식
Museum Period Rooms Re-Occupied in Style	63.11.27-64.1.5	새로 단장한 박물관의 시대별 전시실: 루이 15-16세와 조지 2세 시대
Vignettes of Fashion	64.6.22- ?	초상화속의 패션: 18-20세기 초의 미국과 유럽 복식
The Eighteenth Century Woman	81.12.12-82.9.5	18세기 여성복식
The Ceaseless Century: 300 Years of the 18th Century Fashion	98.9.9-98.11.29	영구한 세기: 18세기 복식과 이후 시대의 18세기 영향 받은 스타일 증명
Dangerous Liaisons: Fashion and Furniture in the 18th Century	04.4.29-04.9.6	위험한 관계: 18세기 패션과 가구

시를 통해 미를 추구할 수 있는 전시회를 개최하였다고 한다 (윤은재, 1998, pp. 78-80).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개최되었던 18세기 복식전은 대체로 복식과 가구가 동시에 전시되었는데 이는 앞의 이론적 배경에서와 살펴 본 것 같이 당시 시대의 예술은 종합적인 것으로 조화를 통해 만들어 진 것임을 알 수 있었다.

### III. “영구한 세기”전에 나타난 복식의 특징

본 장에서는 Richard Martin이 기획했던 “영구한 세기”전에 나타난 복식을 사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영구한 세기”는 1998년 9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개최되었던 전시로 18세기 스타일과 이를 리바이벌한 20세기 복식까지를 전시하였는데 이를 통해 같은 한시대의 패션 경향이 그 후의 시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다시금 재창조되는가를 보여주고 증명하고자한 기획의도가 잘 표현된 전시회였다.

이 전시에서 Richard는 18세기 이후 300년간 복식에 큰 영향을 끼쳐 온 18세기 복식과 그의 리바이벌 스타일을 5개의 갤러리로 구분하여 전시하였다. 즉 제 1 갤러리에서는 퀴즈게임이라 하여 전형적인 18세기 복식과 18세기 복식을 리바이벌한 드레스를 혼합하여 전시하였으며, 제 2 갤러리에서는 복식의 구성적인 면과 조형적 실루엣을, 제 3 갤러리에서는 의상연구소에 소장되어 있는 18세기 남녀복식을, 제 4 갤러리에서는 18세기 복식의 영향을 받은 19세기 복식을, 제 5 갤러리에서는 18세기 스타일에 영향을 받은 20세기 드레스를 전시하였다. Richard는 패션사 학자로 특히 20년간 F.I.T.(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예술학 교수, Shirley Goodman 연구 센터의 관장, 패션산업체 교육재단의 관장 및 대학원장을 역임하였으며, 뉴욕대학교 등 여러 대학교에서 강의도 하였다. 그는 1993년부터 1999년까지 의상연구소의 수석 학예관으로 재직하면서 많은 전시를 기획하였는데 특히 복식의 문화적 교류를 통한 영향들과 로코코 등 시대별 복식이 리바이벌되어 현대 패션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한 전시를 통해 미래 패션에 대한 예측을 짐작하게 해 주는 등 앞장의 두 기획자들보다는 상징적인 면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Richard는 “영구한 세기”전 도록에서 18세기 예술은 끊임없이 현대예술의 영감의 원천으로 계속 제공되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그는 18세기 복식의 실루엣이나 직조법과 표면의 장식 기교 등이 패션에 응용되고 있다고 하였다. 샤넬(Chanel)사를 위한 칼 라거펠드(Karl Lagerfeld; Lagerfeld), 베르사체(Gianni Versace; Versace),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 Westwood),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 Gaultier), 크리스티찬 디올(Christian Dior; Dior), 크리스찬 라크루아(Christian Lacroix), 올리비에 테스킨스(Olivier Theyskens; Olivier) 외에도 여러 디자이너들의 작품 속에서도 18세기 복식의 디자인 요소를 응용한 작품을 찾을 수 있다 (www.vogue.com).

따라서 본 장에서는 18세기복식이 현재까지도 패션디자인 영역에 계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전시를 통해 강조한 Richard의 전시작품 중 18세기, 19세기, 20세기 복식 사진들을 “영구한 세기” 도록 중심으로 복식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8, 9〉는 19세기 복식으로, 〈그림 8〉은 영국의 웨일즈 왕세자비인 Elised의 1880년경 볼 가운데로, 크림색 비단 위에 레이스로 장식하였으며 금띠술과 금속스팽글을 소매단과 스커트 중간 및 스커트 단에 장식하였다. 〈그림 6〉의 로브 아라 프랑세즈가 19세기에 재현된 형태인데 소매끝단의 레이스 양가장트 장식과 스퀘어 네크라인과 꽃과 리플장식, 팍끼는 바디스의 형태 등에서 18세기 복식 경향과 유사함을 찾을 수 있다.

〈그림 9〉는 미국의 1885경 여름 외출복으로 흰색으로 깔끔하게 디자인되었는데 〈그림 7〉의 1780년대 로브 아라 폴로네에즈의 버슬 스커트 형태가 재현되었다. 또한 상의부분의 바디스와 소매형태도 아주 흡사한 형태이다.

〈그림 10〉은 “Eventail” 카테일 드레스로 Christian Dior이 1956년 F/W에 발표한 작품인데 midnight blue색의 꽃무늬 taffeta로 만들었다. 그의 낭만적인 “Aimant” 컬렉션에서, Dior는 18세기 것이 현대적으로 응용됨을 강조적으로 반복하였다. Dior는 풍성한 스커트와 가슴을 강조했고 18세기 귀족 여자들이 의사전달을 위해 자주 이용했던 부채를 이용하였다. Dior는 코르셋의 내부 구조의 경직된 구조를 이용해 가슴을 묶었으며 18세기 데콜테처럼 가슴을 보조해주는 플랫폼과 허리 아래 형태를 만들었다.

〈그림 11〉은 Christian Lacroix가 1987년 F/W에 발표한 이브닝 앙상블로 검은색 합성 faille, 레이스, 점무늬 네트 및 아플리케한 리본 등으로 만들었다.

Lacroix의 “pouf”는 1860년대와 1880년대에 유행하던 로브 아라 폴로네에즈의 스커트 형태를 부활시킨 것이다.

〈그림 12〉는 Chanel사에서 1990-91년 F/W에 Lagerfeld가 발표한 드레스인데, 크림색 비단 공단에 금실과 금속성 실로 수놓은 아플리케로 장식하였다. 18세기의 로브 아라 프랑세즈처럼 스커트의 앞트임과 상체의 타이트한 바디스와 자수 장식등을 디자인에 적용했다. Lagerfeld의 디자인은 18세기 베르사이유의 귀부인들과 하층계급인 쇼걸의 복식처럼, 상하류층 계급을 압축·대조시켰고 이상적 이미지 차용을 병용



〈그림 6〉 로브 아 라 프랑세즈 ca. 1770, p.27



〈그림 7〉 로브 아 라 플로네즈 1780-85, p.24



〈그림 8〉 볼 가운, ca. 1880, p.50



〈그림 9〉 여름 외출복, ca. 1885, p.55



〈그림 10〉 칵테일 드레스, Dior 1956 F/W, p.71



〈그림 11〉 이브닝 앙상블, Lacroix 1987 F/W, p.73



〈그림 12〉 이브닝 앙상블, Chanel by Lagerfeld 1990-91년 F/W, p.64

해 사용했다. Lagerfeld는 패션 디자인 뿐만 아니라 그의 저택의 인테리어 장식등 그의 예술과 삶의 모티브로 18세기를 즐겨 이용하였다.

#### IV. “위험한 관계”전에 나타난 복식의 특징

본 전시는 2004년 4월 29일부터 2004년 9월 6일까지 전시되었으며 Asprey 런던이 후원하였다. 원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상설전시실인 유럽의 조각과 장식예술(European Sculpture and Decorative Arts) 중 Wrightman 갤러리에서 개최되었으며 전시는 의상연구소에서 담당한 것으로 ‘초상(the Portrait)’, ‘접견(the Levee)’, ‘음악수업(the Music Lesson)’, ‘밀실(the Withdrawing Room)’, ‘부서진 화병(the Broken Vase)’, ‘충애(the Favorite)’, ‘가면의

미(the Masked Beauty)’, ‘카드게임(the Card Game)’, ‘늦은 저녁(the Late Supper)’, ‘상점(the Shop)’ 등 10개의 테마로 구분하여 전시되어 있었다. 10개의 테마 전시를 통해 전시 담당자는 18세기의 자유스럽고 에로틱한 풍속적 장면을 재연하면서 관람자에게 시대 풍자적인 느낌을 강하게 보여주고자 의도하였다.

〈그림 13〉은 전시장 입구로 단순한 광목을 이용한 커튼 장식으로 관람자로 하여금 커튼 안쪽의 전시 의복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감을 강화시켰다. 전시장내에서는 단순한 광목이 전시 의복의 화려함을 더욱 부각시켰으며 이를 통해 관람객에게 전시에 대한 흥미를 더욱 고조시켰다. 입구의 광목 커튼을 들춰주는 남자는 오늘날의 조끼의 원조인 웨이스트 코트(waist coat)와 쥘스토코르(justaucorps), 바지로는 무릎 바로 아랫길로 타이트하게 맞는 바지인 쿨로트(culotte)를 착용하였다.



〈그림 13〉 전시장 입구



〈그림 14〉 '접견' 전시장면



〈그림 15〉 '음악수업' 전시장면

〈그림 14〉는 '접견'이란 테마로 1775-78년경 Gresse 지역의 내실 장면 즉, 아침 일찍 접견을 위해 준비하는 여성의 헤어 스타일링 과정을 보여 준다. 그 당시에는 사회상인 이슈가 되는 사건들을 주제로 장식하는 거대한 크기의 머리 스타일이 유행이었다. 〈그림 15〉는 '음악수업'이란 테마의 1765-72년 비엔나 지역의 방을 재현한 공간에서 음악수업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속의 로브 아 라 프랑세즈를 착용한 여성과 웨이스트 코트, 주스토코르, 켈로트 복식의 남성을 통해 로코코 양식이 비엔나까지 전파되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외에 '초상'이란 테마에서는 초상화의 모델이 되는 여성과 실내 공간 등이 전시되었다. '부서진 화병'에서는 코르셋의 무리한 착용을 통해 당시에 있었을 것 같은 여성들의 남모르는 고통의 모습을 재현하였으며, '카드게임'에서는 당시의 풍속을 보여 주었고, '상점'에서는 가게 뒤의 남녀의 은밀한 밀회장면을 풍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V. 현대 패션에 표현되는 18세기 복식 영향

III장에서 Richard는 그의 전시회 도록 중 20세기 부분에서 Chanel사의 Lagerfeld, Gaultier, Westwood, Lanvin, Versace, Dior 등 여러 디자이너들의 작품들을 통해 18세기 재현성을 발견하였다고 하였다. 18세기 복식은 현재까지 계속 많은 디자이너들에 의해 응용되고 있는 복식으로 이를 본 연구에서는 1999년 S/S, 04-05 F/W와 05 S/S 파리와 뉴욕 컬렉션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18세기 복식의 특징이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위의 디자이너들은 각자의 독특한 작품 경향을 가졌으며 소재 및 실루엣의 다양성을 찾을 수 있었다. 〈그림 16〉은 Chanel사의 05 S/S 컬렉션으로 18세기 여성 드레스의 소매

장식이었던 레이스를 이용한 앙가장트형 소매의 재현과 그 시대의 남성들의 타이트한 바지인 켈로트의 디자인을 볼 수 있으며, 〈그림 17〉은 Lagerfeld 자신의 signature brand 인 Lagerfeld Gallery의 작품으로 여러 겹의 레이어로 구성된 풍성한 스커트에서 18세기적 요소를 찾을 수 있었다. 또한 〈그림 18〉은 Gaultier의 작품으로 18세기의 콜셋형태의 바디스와 스커트의 앞이 터진 형태가 로브 아 라 프랑세즈와 흡사하다. 특히 가죽 소재를 사용해서 현대적인 세련됨을 강조했다. 〈그림 19, 20〉은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 Galliano)가 Dior사와 자신의 브랜드에서 선보인 작품이다. 〈그림 19〉는 Galliano가 Dior사의 04-05 F/W 오트 쿠튀르 컬렉션을 위해 발표한 작품인데 타이트한 바디스와 부풀린 스커트, 과장된 헤어스타일은 마치 18세기 귀부인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그림 20〉은 Galliano의 05 S/S 작품으로 꽃과 자수장식과 부풀린 스커트의 디자인은 18세기의 화려한 스타일이 연상된다. 〈그림 21〉은 Rochas사를 위해 Olivier가 05 S/S 컬렉션에서 선보인 작품으로 올리브, 그린과 검정 색상이 어우러진 드레스인데 풍성한 스커트와 코르셋을 착용한 듯한 뷔스티에가 마치 18세기 복식을 보는 듯하다.

〈그림 22, 23, 24〉는 Oscar de la Renta(; Renta)가 뉴욕 컬렉션에서 99 S/S와 05 S/S에 발표한 작품들로 타이트한 바디스와 풍성한 스커트는 18세기의 로브 아 라 프랑세즈의 스타일과 유사하다. 특히 05 S/S의 검은 드레스는 18세기의 여성들이 옷속에 착용하던 콜셋과 파니에(panier, 스커트 버팀대)를 과감하게 겹옷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소재도 검은색의 레이스를 선택하여 에로틱한 분위기를 표현한 작품이다.

〈그림 25〉는 Alexander McQueen의 핑크 드레스로 과장된 스커트와 머리 장식 및 앙가장트 형태의 소매를 통해 18세기 복식의 영향을 찾을 수 있다.

〈그림 26〉은 Viktor & Rolf의 작품으로 피트 되는 상의





〈그림 16〉 앙상블, Chanel 05 S/S



〈그림 17〉 앙상블, Lagerfeld 05 S/S



〈그림 18〉 앙상블, Gaultier 04-05 F/W



〈그림 19〉 드레스, Dior 04-05 F/W



〈그림 20〉 드레스, Galliano 05 S/S



〈그림 21〉 드레스, Olivier (Rochas), 05 S/S



〈그림 22〉 드레스, Renta 99 S/S



〈그림 23〉 드레스, Renta 05 S/S



〈그림 24〉 드레스, Renta 05 S/S



〈그림 25〉 드레스, McQueen 05 S/S



〈그림 26〉 드레스, Viktor & Rolf 05 S/S



〈그림 27〉 드레스, 강기욱 05 S/S

와 부풀어진 스커트, 그리고 과장되게 사용된 리본 장식 등을 통해 18세기적 요인을 찾을 수 있다. <그림 27>은 한국 디자이너인 강기옥이 서울컬렉션에서 발표한 작품으로 2005 S/S 시즌에서 그녀는 소녀라는 코드에 모던과 오리엔탈리즘적 요소를 절묘하게 조화시키고자 했다. 진 소재와 대조되는 레이스 장식과 코르셋 형태의 상의 부분과 스커트 형태 등은 전형적인 18세기 디자인의 영향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을 통해 18세기 복식의 특징들을 현대 여러 디자이너들의 작품 속에서 살펴 볼 수 있었으며 특히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의 복식전 고찰을 통해 앞 시대의 복식 또는 과거의 복식이 현재의 패션 디자인이나 미래의 새로운 디자인 창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두 복식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보다 나은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디자인 요소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복식의 꾸준한 기획 전시활동, 복식사 연구 등이 계속 되어야 된다고 본다.

## VI. 결론

본 연구는 18세기 복식이 현대 패션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여 보다 미래적인 디자인을 창출하는데 일조하기 위한 것이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8세기는 여성적인 요소가 복식의 취향과 양식을 결정하는 시대로 복식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향은 사회의 전반적인 분야를 지배하게 되며, 루이 15세의 애인 마담 폰파두르와 루이 16세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는 18세기 프랑스 복식의 리더였다.

섭정기의 여성복식은 그 시기의 느슨한 생활감각과 잘 맞아 넉넉한 실루엣의 와토 가운이 유행하였다. 루이 15세 시기의 여성복식은 자유로운 생활양식에 영향을 받아 화려하고 과장된 실루엣의 로브 아 라 프랑세즈가 유행하였다. 루이 16세 시기의 여성복식은 더욱 화려해지고 스커트가 옆으로 확대되어 거대해지다가 뒤로 퍼프가 옮겨지면서 로브 아 라 폴로네에즈가 유행하였다.

세계 4대 박물관중 하나인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의 의상연구소는 현재 세계의 거대한 복식컬렉션중 하나로 패션 연구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1939-1971년까지의 Polaire Wiessman, 1972-1989년까지 Diana Vreeland, 1993-1999년까지 Richard Martin, 2000-현재 Harold Koda 등이 전시기획을 담당하고 있다.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개최되었던 18세기 복식전은 대체로 복식과 가구가 동시에 전시되었는데 이는 당시 로코코 예술양식이 가장 잘 표현된 것이 가구공예와 패션이라는

점이 반영된 듯하다.

Richard의 “영구한 세기”에서는 18세기 스타일과 이를 리바이벌한 20세기 복식까지를 전시하였다. 이를 통해 같은 테마의 전시도 전시기획자에 따라 각기 다른 전시가 개최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Richard는 “영구한 세기”전 도록에서 18세기 예술은 영감을 지니며 이는 계속 제공되고 있다고 하였다. Lagerfeld, Versace, Gaultier, Dior, Balenciaga, Balmain, Lacroix 등의 디자이너들의 작품속에서도 18세기 복식의 디자인 요소를 응용한 작품을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위험한 관계”전은 Wrightman 갤러리에서 개최되었으며 전시는 의상연구소에서 담당한 것인데 마네킹을 이용하여 전시하였다. ‘초상’, ‘접견’, ‘음악수업’, ‘밀실’, ‘부서진 화병’, ‘총애’, ‘가면의 미’, ‘카드게임’, ‘늦은 저녁’, ‘상점’ 등 10개의 테마로 구분하여 전시되어 있었다. 전시 담당자가 당시의 자유스럽고 에로틱한 풍속적 장면을 재연출하면서 관람자에게 시대 풍자적인 느낌을 강하게 보여준 것 같다. 전시회에 소개된 복식은 로브 아 라 프랑세즈, 로브 아 라 폴로네에즈와 남성들의 복식인 웨이트 코트, 주스토코르, 킬트 등이다.

따라서 로코코 시대 복식은 18세기 이후 계속해서 현대 여러 디자이너들의 작품 속에서 차용되거나 새로운 디자인으로 승화됨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주로 타이탄 상의와 풍성한 스커트, 양가장트나 과장된 머리장식, 리본이나 레이스의 사용 그리고 여성적인 감각이 가장 많이 공통적으로 디자인에 표현되었으며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의 의상연구소에서 역대 복식전중에 가장 많이 기획 전시되고 있는 것이 18세기의 복식전들이었으므로 이를 통해 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을 주는 요소임이 확인 된 듯하다.

앞으로 보다 나은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디자인 요소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재창조할 수 있는 디자인 능력 배양과 전문적인 패션연구가 필요하며 유물복식전의 역할도 복식사 연구와 디자인 창출에 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김교육(1968). 18세기 로코코시대의 여자복식 변천과정에 대한 연구. 성신여자사범대학 가정학 논문집.
- 金權惠(2003). 로코코 양식을 응용한 신발디자인. 계명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金 貞(2002). 로코코시대 여성복식의 구성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주애(1998). 로코코시대의 남성속옷에 관한 고찰. 복식문화연구, 6(3).

- 丹野有(1959). 서양복식 발달사. 광생관.
- 동아미술대전집: Grand Collection of World Art: Baroque Rococo Art, 서울: 동아출판사.
- 동아출판사(1982). 세계미술대사전. 서울: 동아출판사.
- 박신희(1999). 1990년대 해외컬렉션과 국내컬렉션의 패션 트렌드 비교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만실(1975). 장식미술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신상옥(2004). 서양복식문화사. 수학사.
- 윤은재(1998). 복식 특별전이 현대패션에 미친 영향 분석 연구. 서경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연구, 5.
- \_\_\_\_\_(2004). “여신” 전에 대한 연구. 중부대학 예술·체육문화연구, 13(8).
- 윤재희, 지연순(1993). 바로크·로코코건축. 서울: 세진사.
- 이선화(2003). 바로크와 로코코 시대 플로럴 패턴의 조형성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영환(1978). 서양미술사. 서울: 박영사.
- 이혜림(2000). 로코코시대 여성복식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인옥(1982). 미술사조가 복식에 미친 영향. 복식학회지, 9.
- 宮川淳譯(1964). 18世紀 フランス織物. 東京: 美術出版社.
- Andr Mourois, 신용석譯(1991). 프랑스사. 서울: 기린원.
- Fashion News* (1998, 1999, 2004, 2005).
- Fran ois Boucher (1987). *20,000 Years of Fashion*. New York: Harry N. Abrams, Inc. Publishers
- Gap Japan* (2004, 2005).
- Kyoto Costume Institute (1990). *La Mode en France 1715-1815*. Paris: La Bibliotheque des Arts.
- Max Von Boehn (2000). 이재원 譯, 패션의 역사 1, 서울: 한길아트.
- Moda In* (1998, 1999, 2004, 2005).
- Pyne Blanche (1965). *History of Costume*. New York.
- Richard Martin (1998). *The Ceaseless Century*. New York: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 Robert C. Lamm, 이희재 譯. 서양문화의 역사Ⅲ. 사군자.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2004). *Dangerous Liaisons*. New York: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 [www.firstview.com](http://www.firstview.com)
- [www.metmuseum.org](http://www.metmuseum.org)
- [www.vogue.com](http://www.vogue.com)
- (2005년 3월 9일 접수, 2005년 11월 1일 채택)